

‘그냥’이 아니라 ‘왜’

신예담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긴 수명이 떠오르기도 하지? 정말 그렇게 수명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마을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아이는 할아버지 가슴팍까지 내려온 하얗고 긴 수명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명을 이불안에 넣나요 아니면 꺼내 놓나요?” 할아버지는 “예게! 이 벼룩같은 놈.” 하고 소리치려다가 문득 자기도 금금해졌다. 왜냐하면 수명을 기른 채 몇십 년 동안이나 살아왔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궁금증을 지녀 본 적이 없었거든. ‘허허, 그러고 보니 내가 정말 수명을 꺼내 놓고 잤나, 넣고 잤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쏭달쏭하기만 했지. 결국 할아버지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 할 수밖에 없었단다. “글세다. 허, 참. 이 녀석, 별걸 다 묻는구나. 정 궁금하다면 말이다, 오늘 밤에 한번 자고 내일 아침에 저한테 주마.”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지. 우선 이불 속에 수명을 넣고 밀어야. 그런데 너무 겁겹하고 기복해서 아무래도 수명을 밖에 내놓고 자야 할 것 같았어. ‘음지! 수명을 이불 밖으로 꺼내 놓고 잔 게 분명해!’ 할아버지는 밀은 수명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눈을 감아 봤어. 그런데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어. 이불 밖으로 내놓은 수명 때문에 왠지 허전하고 설렁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야.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수명을 이불로 덮으니 갑갑하고, 이불 밖으로 꺼내 놓으면 허전하고..... 할아버지는 밤내도록 수명을 넣었다 꺼냈다 하느라고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단다. 물론 할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에 가르쳐 주겠노라고 하던 아이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지. 이상한 일 아니냐? 분명 그건 할아버지 자신의 수명이고, 할아버지는 몇십 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잠을 잤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아이가 묻기 전까지 그 수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무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물

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 물어본다고 한들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문제잖아. 정말 답답하고 기막힌
 일이었지. 그 뒤로 할아버지는 밤마다 수면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재미있는 이야기
 라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너에게도 그런 수면이 있는지 말이야. 아이들한테
 무슨 수면이 있냐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도 누가 질문을 할 때 가끔 '그냥'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을거야, 바로 그 '그냥'이라는 말이 너의 수면어란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먹고, 그냥 자고, 그냥 노는 날 말이야. 어떤
 때에는 불이 와서 꽃이 피어도, 아침이 되어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도 아무 느낌 없이 흘깃 보
 고 지나쳐 버리기도 하지. 새들이 어떻게 짹을 지어 날라가고, 구름이 어떻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지 몇 번이나 눈여겨보았니? 자신에게 또는 남들에게 궁금한 일을 몇 번이나 질문해 보았니?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하고,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냥 했던 일은 없었니? 자기 안에 물음표
 가 없어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사람은 전전지를 넣고 단추를 누르면 그냥 북을 쳐 대는
 곱 인형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순간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야기 속 할아버지와 똑같아. 자기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닌 수면을 달
 고 있으니 말이야. '그냥 수면'을 달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누가 "왜?" 또는 "어떻게?"
 하고 물으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 아무리 자기가 한 일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내려고 애
 서도 지나온 날들은 이미 멀리 사라져 버려서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지. 어느
 날엔가 너한테도 누군가가 물어 묻지 몰라. 그때를 위해서라도 '그냥'이라는 대답이
 아닌 무언가를 준비해야겠지?